

	<h1>보도자료</h1>	2022. 02. 27.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강원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 민주당 중앙선대위 평화번영위-강원선대위

### 강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와 강원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일) 11시, 강원도당 회의실(춘천 소재)에서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종석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前 통일부 장관/ 前 NSC상임위원장), 모종화(前 병무청장)·부석종(前 해군참모총장) 평화번영위 산하 국방정책위원장, 박종진(前 제1야전군사령관)·황인권(前 제2작전사령관) 평화 번영위 산하 스마트강군위원장 등 예비역 장성 12명과 허영, 이광재, 최윤 강원대전환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지켜왔고 역사적으로도 강원도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며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던 것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약에 나타났다. 강원도의 발전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윤 강원선대위공동상임위원장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환경이 복잡해서 지혜롭게 펼쳐나가야 할 때” 라며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 등을 언급하며 안보와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선제타격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 라고 말했다.

평화번영위원회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희생을 겪어

은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강군 정책, 국익 중심의 안보 정책, 민군 상생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제1야전군사령관 출신인 박종진 평화변영위원회 스마트강군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강(自強) 없이 강대국 정치에 편승하거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육성과 군 인력의 전문화에 꼭 필요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부석중 평화변영위원회 국방정책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 사드배치, 전술핵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부 위원장은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고, 사드 추가 배치는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적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효율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장 출신의 모종화 평화변영위 산하 국방정책위원장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민군 상생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접경지역 주민 우선 채용과 안정적 계약을 지원하는 방안, 군의 미사용부지를 지방정부와 함께 개발하는 방안, 군 사격장 등 주변 지역 소음 피해보상과 안전 대책,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강원대전환선대위의 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광재 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 첫 번째 공약, ‘평화’를 바탕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통해 분단과 안보로 특별한 희생을 해온 강원도가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에는 춘천 풍물시장으로 이동해 평화변영위원회와 강원대전환선대위 공동으로 집중 유세가 진행되었다. 유세에는 황인권(前 제2작전사령관) 스마트강군위원회 위원장과 문원식(예비역육군 준장) 평화변영위 산하 스마트강군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끝)

[첨부] 행사 사진



